문화수도에 세운 '불교예술의 멋'

불교계 종합예술단 '한꽃예술봉사단' 창단… 실내악·재즈 등 장르 다양

내달 1일 첫 공연… 5월 26일부터 4일간 日 '오사카 마쓰리' 축제 참가

문화수도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불교계 최초의 종합예술단이 창단됐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 예술인들이 '문화공연'으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한꽃예술봉사단'을 결성한 것이다. 무용단이나 합창단 등 독립된 장르의 예술단은 많지만 무용, 실내악, 재즈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예술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꽃예술봉사단에는 현재 한꽃무용단(단장 무화스님), 한꽃실내악단(단장 이정아), 한꽃 실내오케스트라(단장 유상호) 등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꽃 예술봉사단은 내달 1일 오후 7시 광주 KT 정보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창단 공연(후원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불교방송)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이날 공연은 한꽃 무용단의 화관무·법고춤 등 불교무용으로 막이 오른다. 불교무용가와 전통무용가 12명이 참여해 불교 예술의 '꽃'이라고 불리는 영산재 의식의 하나인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화관무, 한춤 등을 공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꽃무용단은 26일부터 4일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오사카 마쓰리(축제)'에도 참가해 한국 전통 무용을 선보인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등 현악 4중주 앙상블로 구성된 한꽃실내악단은 이날 창단 기념공연에서 하이든의 '세레나데'를 비롯해 찬불가와 '유모레스크', '캐논'을, 한꽃 재즈오케스트라는 재즈곡 'watermellone man' 등을 연주한다. 드럼, 기타, 베이스, 피아노, 색소폰 등 5인조로 구성된 한꽃재즈오케스트라는 창단공연에서 현대음악의 대표장르로 꼽히는 재즈곡과 장중한 분위기의 찬불가를 재즈만의 감각적인 연주로 들려준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2002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뉴에이지부문 '올해의 음반상'을 수상한 티베트 출신의 명상음악가 나왕케촉(Nawang Khechog·**사진 왼쪽**)의 축하공연도 곁들여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유상호 한꽃 재즈오케스트라단장은 "불교와 재즈의 결합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대중들과 거리감을 좁혀 나가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한꽃 예술봉사단은 창단공연 이후 본격적으로 후원회 결성과 법인화 작업을 마무리 짓고 정기적인 공연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한꽃 국악단, 한꽃어린이 예술단 등도 창단을 앞두고 있어 불교예술의 대중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술단 창단을 구상한 현장스님(대원사 주지)은 "광주는 아시아 문화 수도를 지향하는 문화도시인 만큼 아시아의 불교 예술을 매개로 불교문화를 대중화·국제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1천600여년간 이어온 우리 전통문화인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 앞으로는 일본이나 몽골, 스리랑카 등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단체로 육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종교칼럼

오 덕 호

귀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영국의 40대 국왕 에드워드 8세는 미국 출신의 미망인인 심프슨 부인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어머니와 의회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많은 고민 끝에 에드워드 8세는 심프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포기하고 만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 당대 최강국의 왕위를 포기한 이 사건을 사람들은 '세기의 사랑'이라고 불렀다.

에드워드 8세는 심프슨 부인이 국왕의 지위보다 더 귀했기에 스스로 평민이 된 것이다. 이렇게 귀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귀한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하나는 사람이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변하는 것이다. '세기의 사랑'이 이런 경우이다. 한 남자가 자기에게 가장 귀한 여인을 얻기 위해 왕의 지위를 버리고 평민으로 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던 어린이가 여러 해 만에 꿈에도 그리던 부모님을 다시 찾았다고 생각해보라. 이 어린이가 얼마나 많이 변하겠는가!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부모님의 정성스러운 교육으로 얼마나 잘 자라겠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변한다. 가장 귀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말과 행실이 변한다. 또한 이미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삶이 변한다.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행복하며 자신의 행복을 이웃과 나누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친절하고 정직하며 경건해진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지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장 귀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삶이 변화되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아울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서석교회 목사〉

종교·복지 단신

천주교 광주대교구 주보·간행물 전시회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27~28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구 주보 및 간행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교구 주보 빛고을 창간호부터 최근호에 이르기까지 32년 동안의 역사를 사건별로 분류한 자료들이 선보인다.

또 22년동안 주보를 수집해온 오재중 알베르토씨 등 개인 16명이 소장하고 있는 주보와 간행물 등 40여점이 전시된다. 062-510-2833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종교이야기의 밤'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소장 김영태)는 한국종교간 대화학회와 공동으로 29일 오후 6시 30분 전남대 국제회의동 제1 세미나실에서 '종교이야기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 가톨릭대학교의 이덕근 신부가 '종교간의 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062-530-2400

'장애인 직업재활 위한 보물창고' 개소

○…광주사회복귀시설(시설장 이지은)이 24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정신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보물창고'를 개소했다.

보물 창고는 일반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후원과 기증을 통해 받은 새 물품과 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물품 등을 시중에 비해 80%정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다.

아동용 장난감부터 의류, 화장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주말은 휴무다. 062-261-4370

광주·전남 불교상담 기초교육

○…지역불교 상담 활동가 양성을 위한 '광주전남 불교상담 기초교육'이 27~28일(오전 9시~오후 6시)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과 자비신행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에는 70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참가비는 전액무료. 062-234-0090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